

KAL, 2천년까지 첨단항공기 41대 신규도입

대한항공이 금년중 B777과 A330 항공기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4년간 모두 41대의 최첨단 항공기를 신규도입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올해 화물기 1대를 포함해 B747-400 3대와 B777 2대, A330 2대 등 모두 7대의 항공기를 들여온다. 이어 98년에는 B747-400 4대, B777 3대, A330 5대 등 모두 12대의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99년에는 B747-400 4대와 B777 4대, A330 5대 등 13대를 도입하는 한편, 2000년에 B777 5대, A330 4대 등 9대를 도입, 총 41대의 항공기를 신규 도입한다.

동사는 특히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의 최신예 기종인 B777과 A330 항공기를 집중적으로 도입, 대형 국제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나, 국내선에 1등석 도입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4월부터 국내선 항공편에 1등석 좌석을 도입해 운항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국내선의 서비스 수요 다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국내선 항공편에 1등석 좌석을 신설해 4월 1일부터 운항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신고절차를 마치고 3월 말까지 B747 기종 22대를 대상으로 좌석변경 등 사전 준비작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등석 요금은 기존의 2등석에 비해 48% 높게 책정됐으며 가격이 비싼만큼 좌석공간도 기존의 2등석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나고 기내식 등 각종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 브리티쉬 에어웨이즈 지역 항공기 구매 검토

브리티쉬 에어웨이즈(BA)사는 제안된 지역 제트기의 구매를 위해 항공기 제작업체와의 협상을 재개했다.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항공기에는 AI(R)의 Avro RJ85와 RJ100, 에어버스 A319, 보잉 737-600, 맥도널더글라스의 MD-95가 포함되어 있다. 최종 결정은 올해 중순경으로 예

상된다.

BA사의 지역 제트기 계획은 지난 96년 1월에 발표되었으나, 지난 5월 동 항공사가 지역 사업에 대한 리스트러처링을 끝낸 후에야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항공기 구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구체적 시안들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BA사는 이번에 영국의 국내선중 맨체스터와 버밍햄간을 운항하는 18대의 보잉 737-200기와 10대의 브리티쉬 에어로스페이스 ATP기를 교체하고자 한다.

Chapter3 소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737-200기는 2002년부터는 유럽에서 운항할 수 없다. 동 항공기를 가지고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로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이미 과중한 벌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BA사는 처분하는 737-200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소음장치도 고려하고 있다

BA사는 737-200기를 처분하면서 재매각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소음장치(hushkit)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 에어 차이나 777기 구매 고려중

에어 차이나는 또다시 보잉 777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보잉사는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15대의 쌍발 제트기 거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중국의 대표적 항공사인 에어 차이나는 구매자 장착 항목에 대하여 보잉 777기의 판매자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이것을 중-미간의 관계 개선의 확실한 증거로 보며 난항을 거듭하던 판매 협상이 진전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보잉사는 18개월 이전에 에어 차이나와 10대의 777기와 5대의 옵션 그리고 5대의 747-400기에 대한 잠정적 동의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과 베이징간의 일련의 정치, 무역상 충돌로 인해 국가 계획 위원회의 동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에어 차이나는 777-200과 -300 스트레치기를 섞어서 구매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적인 비율은 아직 확실하지 않

다. 원래 에어 차이나는 최초 777기를 올해부터 인도 받기를 원했으나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98년 말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에어 차이나가 최대 20대까지의 200인승 단일통로형기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동 항공사는 선택의 폭을 에어버스 A321기와 보잉 737-800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 VASP 아르헨티나 항공사에 눈독

브라질의 항공사인 VASP사는 아르헨티나의 항공사인 Aerolineas Argentinas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을 사들이려 한다고 알려졌다. 아직 아르헨티나의 동 항공사에 미련



아르헨티나 항공이 브라질의 거대 항공사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Iberia사는 동 항공사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제안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VASP의 교섭 개시는 아르헨티나에서 수많은 억측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신문들은 콘티넨탈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을 또다른 입찰 가능 후보로 꼽고 있다. 두 항공사 모두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Aerolineas Argentinas사는 몇 년전 단행된 민영화가 영망으로 되어버린 후부터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그 결과 Iberia사는 원치도 않았던 동 항공사의 주식 85%를 떠맡게 되었다. 이후 Iberia사는 자사 보유 지분을 20%까지 줄여야 했으며 나머지는 Andes Holding이라는 투자 컨소시엄이 보유하게 되었다.

남미에서 확장을 꾀하는 VASP사의 지난 수년간의 노력으로 동사는 볼리비아의 Lloyd Aereo, 에콰도르의 Ecuatoriana de Aviacion, 아르헨티나의 TAN사에서 지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을 확보하게 되었다. 만약 Aerolineas Argentinas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동 항공 그룹의 매출액은 20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